

# KEPCO E&C Family

2023. 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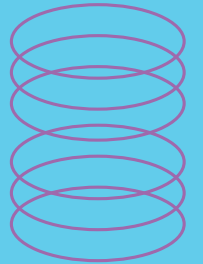
KEPCO E&C Family

2023 07+08



## SPOTLESS

한국전력기술이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노와 사가 한마음으로  
재도약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한전기술이 설계합니다.



## SPOTLESS

흠잡을 데가 없는 미래 설계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직장인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기술의 내일

- 04 E&Cless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사람을 향한 에너지
- 06 E&C ON 1  
노사공동 비전 선포식
- 08 E&C 인포  
KEPCO E&C VISION 2034 DECLARING A NEW VISION

한기인 매일

- 10 비하인드 토크  
전력기술연구원 기술관리실 양승삼 실장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다
- 14 E&C ON 2  
제20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 16 참사랑봉사단  
어린이날 맞이 후원금·물품 전달
- 18 뜻밖의 시간  
ToSPACE의 우수성을 배우러 왔습니다
- 20 사이좋은 사이  
에너지신사업본부&서안종합건설  
활기차고 건강한 현장을 위해!
- 24 도시樂  
“감사한 마음,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전합니다”
- 26 가족의 기록  
계측제어설계실 은형석 차장의 가족사진
- 32 10만 원의 행복  
김천 라이프 즐겁게 지내기 꿀팁  
경영관리본부 정보보안실 김지훈 사원

오늘도 스포츠

- 34 다시 갈 지도  
잠 못 이루는 여름밤, 별 총총한 그곳!  
함백산
- 38 물건은 준비됐는지?  
시원한 여름을 가득 담아
- 40 오직 뮤직  
다시 부르는 그 노래
- 42 펼쳐본 김에 서평까지  
기계배관환경기술실 손병관 부장·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유체계통설계실 정덕목 부처장의 서평

JUL·AUG

통권 477호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3년 7월 17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0-enc.com  
이메일 miru@kepc0-enc.com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인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Technology for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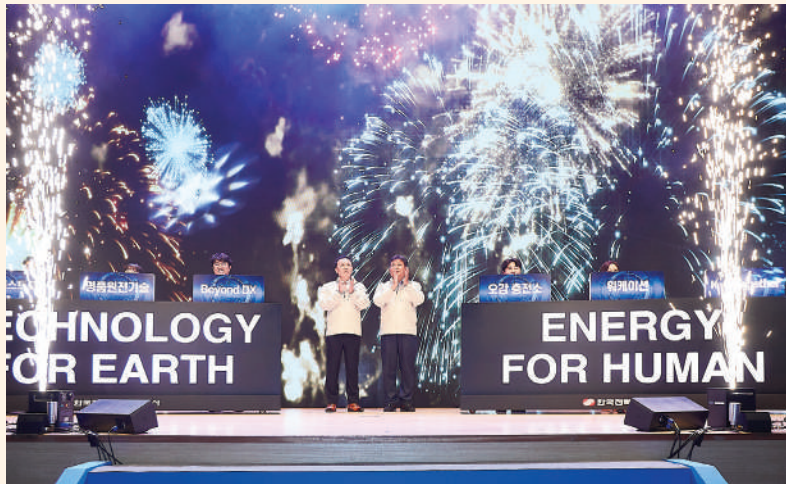
Ener

한국전력기술 비전

Earth

gy for Human  
사람을 향한 에너지





## 노사공동 비전 선포식

# 지속가능 성장과 도약

한전기술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노와 사가 공동으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한전기술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회사 비전 실현에 적극 동참하면서 마련됐으며, 노사 공동 6대 핵심 미래상을 제시했다.

글. 김민선 사진. 한상훈



## 한마음으로 재도약 다짐

지난 5월 16일 김천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 성장과 도약을 위한 노사공동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노사공동 비전 선포식’은 한전기술 노동조합과 회사가 한마음으로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힘찬 재도약을 다짐했다.

임직원 600여 명과 함께 진행된 비전 선포식은 한전기술 노동조합이 대내외에 민주노총 탈퇴 결정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이자, 노사가 함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전기술의 새로운 미래 비전은 “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사람을 향한 에너지)”이며 6대 핵심과제 및 미래상으로 ▲원전 전주기 책임 설계기관 ▲순수 한국형 원자로 및 해양 부유식 SMR(BANDI) 개발 ▲디지털 전환을 뛰어넘는 미래기술 확대 ▲Work and Life Harmony 실현 ▲살아 숨 쉬는 즐거운 일터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이 발표됐다.

김성암 사장은 “그동안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환경 등으로 회사가 많은 흔들림을 겪기도 했고, 대한민국의 자산인 전문기술 인력을 유지하고 독보적 기술을 계승·발전시키는 등 우리 본연의 존재가치와 미션에 충분히 전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노사 간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제 원전 안전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 에너지 안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앞으로 같은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 지역발전·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함께 진행된 비전연계 협약(MOU) 체결에는 지자체·학계·기업체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상생, SMR 선도, 산학협력을 주제로 미래기술 개발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기술은 경상북도, GS건설과 미래 소형모듈원자로와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해 한전기술, 경상북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개발 및 사업화 협력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한전기술은 경상북도와 김천시, 김천시의회와 지역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 강화 업무협약’에 뜻을 모았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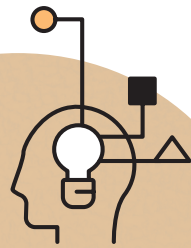
가입 이래  
**34** 년만

조합원 총회 투표 걸쳐  
민주노총 탈퇴,  
노사 대통합의 전기 맞아



**48** 년차  
설계 마에스트로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안전의 산실로 원전 전주기  
책임 설계기관으로의  
비전 추진



**Beyond  
DX 2034**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기술의 기준을 세우는  
AI·VR 설계, 미래기술 발전소,  
EPCM 업역 확대



다니고 싶은  
공기업

**1** 위

살아 숨 쉬는 공간,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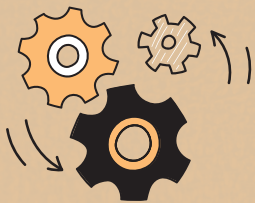


## KEPCO E&C VISION 2034

**SMR-  
BANDI60**

명품원전기술

해양 부유식 SMR-BANDI가  
한국전력기술을 넘어  
세계의 빛이 되는 기술로



**6** 대  
비전 선포 및 연계 협약

한국전력기술의 노사 합동  
새로운 비전 선포



## DECLARING A NEW VISION

**Work and  
Life Harmony!**

꿈을 실현하고 오감을 충전하는  
복합연수원 추진



**11** 개 기관과 함께  
K·G-Together

한국전력기술과  
김천시, 산업계 협력으로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미래기술 개발과  
사회적 가치 창출 상호협력 구축





##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다

전력기술연구원 기술관리실  
양승삼 실장

한전기술의 미래 먹거리를 항상 고민하고 찾아 나서는 곳이 있다. 바로 전력기술연구원이다. 이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전기술이 가진 기술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업무가 총괄되는 곳이다.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자원과 관리에 힘 쏟고 있는 기술관리실 양승삼 실장을 만나보았다.

글. 김민선 사진. 홍덕선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기술관리실을 맡게 된 초보 실장 양승삼입니다. 한전기술과 함께한 지 27년이 되어가네요. 엔지니어로 입사해 구조부지 설계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디지털 전환처를 거쳐 기술관리실에 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부서장 중에서 제가 가장 젊은 겁니다.

### Q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주요 수행업무는 정부 정책 기조와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라 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무를 지원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지원 체계를 잘 갖추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 Q 전력기술연구원과 기술관리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기술관리실은 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과제, 자체 기술 개발 과제, 중소기업 협력 과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 기술 문서, 기술 정보, 기록물 관리 등 지식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아울러 연구원장님의 운영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미래인재 양성 및 확보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 Q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기술개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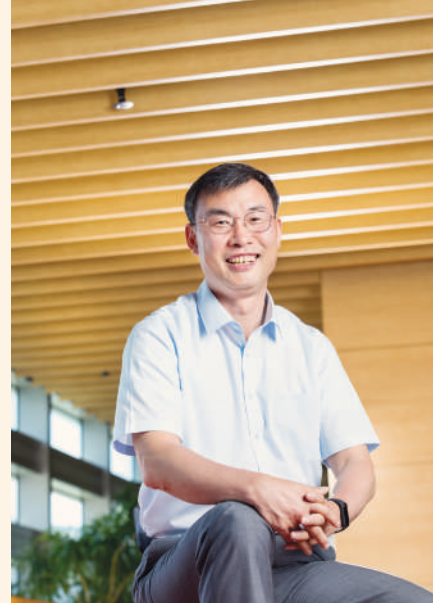
현재(2023년 6월 기준) 정부 지원 31건, 자체 기술 개발 37건, 중소기업 협력 7건 등 총 75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원전 기술 선도를 위한 ‘소형 원자로’, 수소경제 확장 주도를 위한 ‘그린·청정수소’, 안전과 신뢰의 원자력 활용을 위한 ‘원자력 안전’, 생산성·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등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네 가지 분류과제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자원이 수반되었네요?

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와 과제행정 지원 외에도 특허출원 및 등록, 학술·교육활동 예산, 국내외 기술기준과 통합 정보검색시스템 등 지식 관련 지원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기관 및 협회와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주요 기술동향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과제와 논문,







66

저는 ‘관리’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원’에 중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9



지식자료에 대한 포상과 특허 보상비 등을 성과보상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Q 기술관리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과 이를 통해 한전기술이 얻게 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한 특허와 기술,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교수진, 민간 투자자본, 정부 지원 등을 융합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이뤄 매출을 창출하는 형태입니다. 연구원은 원전 폐기물 유리화 기술, 원전 수소생산 기술, AI 기반 설계 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술 습득, 빠른 성과 창출,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이 밖에도 기술관리실에서 노력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와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세계 각국은 소형 원자로, 수소 등에서 특허 전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또한 소형 원자로와 수소 분산형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 획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부서 평가지수에도 반영하고 있어요. 이때 국내외 특허 등록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존폐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전기술은 다양한 기술분야와 공급사가 생산해 내는 수많은 정보와 복잡한 단위 기술들을 하나로 엮어 유기체와 같이 설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설계플랫폼’ 기술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가능한 업무라 여겨지는데요. 협력 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한전기술은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야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때도 많습니다. 이때 저는 협의 내용이 많을수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입니다. 업무 분담부

터 목표와 방향을 충분히 설명해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움을 주면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수월해진답니다.

**Q 27년 한전기술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디지털전환처에 있을 때 데이터 기반 설계시스템 개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회사로부터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부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해 나갔죠. 원전 친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개발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 컸습니다만, 함께한 구성원의 수고와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Q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신조도 궁금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겁게 일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힘들더라도 ‘즐겁게 일하자’입니다. 재밌게 일하려면 업무를 의욕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절차와 시스템에 기반한 ‘표준화’입니다. 표준 절차가 있어야 업무를 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더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쉽게 익히면서 업데이트도 지속하고,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죠.

**Q 지금까지 함께 해 준 구성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외부 기관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한전기술 직원들의 역량과 저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목표를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건강이 최우선이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갑시다.

**Q 앞으로 계획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기술관리실 소속이지만, 저는 ‘관리’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부서와 연구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기술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제도 개선과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우수 인재 영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C**





제20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 RUN, RUN, RUN! 전기인의 긍지를 드높이는 열정 레이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제20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팬데믹 여파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대회로 선보이며 한층 의미를 더했다. 한전기술 임직원 130여 명도 레이스에 참여하며 전기 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전기인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였다. 열정 레이스가 펼쳐진 현장을 소개한다.

글: 김주희 사진: 한상훈



### 전기의 가치를 되새기는 축제 한마당

전력산업계의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20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가 올해부터 경쟁하는 대회를 넘어 가족, 동료,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다. 한전기술 부스에 모인 임직원들의 표정에 설렘과 기대감이 드러났다.

### 화합과 우정을 다진 유쾌한 정주행

이번 대회는 '함께'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성금도 전달됐다. 대회 코스는 미사경정공원을 한 바퀴 달리는 5km 코스와 두 바퀴 달리는 10km 코스로 마련됐다. '한국전력기술'이라고 새겨진 번호표를 단 이들이 눈에 띄고, 총성이 울리자 힘차게 두 발로 땅을 박차고 나아간다. 푸릇한 자연과 탁 트인 호수 풍경이 선사하는 즐거움은 놓칠 수 없는 포인트. 따로 또 같이, 저마다의 속도와 보폭으로 달린다. 기록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기분만큼은 유쾌하다. 목표 지점을 향해 정주행한 임직원들에게 이번 대회는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다. 전력 질주하며 '전기'라는 가치를 되새기고, 전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껏 끌어올린 것. 이날 완주를 계기로 임직원들의 일상 속에서도 활기찬 질주가 이어질지 바란다. E&C

### MINI INTERVIEW

재무처  
장일수 부장 & 달 장윤서 씨



“평소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사회 초년생 딸과 같이 참여했어요.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빗속에서 달리니 성취감이 더 밀려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도 증진하고 다른 전력산업 기관 직원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자력안전센터 이덕수 센터장 &  
전기기술실 진석일 실장



“우리는 31년 동안 연을 이어온 동료 사이인데요. 전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삶의 중요한 자원인 전기를 홍보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 함께 달리니 동료애가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원자력기술실 정진호 사원 & 기계기술실 광재용 사원 &  
기계기술실 손종욱 사원 & 계측제어기술실 임성현 사원



“46기 신입사원 동기들입니다. 러닝 크루로 평소 달리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완주했습니다! 보람차고 하나 된 기분이네요. 1년 후, 훌쩍 성장한 전기인으로 다시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 우리, 함께, 어린이날 맞이 후원금·물품 전달 더불어



##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다!

이웃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참사랑봉사단의 따뜻한 행보는 계속된다. 애향아동복지원을 찾아 지역사회를 한층 포근하고 아름답게 이끈 현장을 함께했다.

글. 김주희 사진. 한상훈

### 가정의 달 맞이, 마음을 전해요

지난 5월 3일, 참사랑봉사단이 애향아동복지원을 찾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김천시에 자리한 애향아동복지원은 현재 46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은 41명의 교사로부터 밀도 높은 돌봄을 받으며 성장 중이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참사랑봉사단의 전력기술연구원 김용수 연구원장을 비롯해

기술관리실, 스마트융합연구소, 디지털전환처의 직원 10명이 참여했다. 기부금과 어린이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하고 복지원 외부 환경 정돈 활동에 나섰다.

단원들은 화단을 정리하고 복지원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각자 도구를 손에 들고 묵묵히 일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던 디지털전환처 김진하 사원은 뿌듯함이 밀려온다.

“현장 활동에 처음 참여합니다. 저의 작은 손길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말끔해진 화단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해요.”

선후배 경계 없이 함께 정성의 손길을 더하는 사이, 주변 곳곳이 한결 깨끗해졌다. 디지털전환처 진지환 사원은 “선배님, 동기들과 같이 마음을 모은 활동이라 더욱 뜻 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나눔 가치를 공유하다

단원들은 복지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복지관 관계자와 나눔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애향아동복지원 김영신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복지원을 찾은 참사랑봉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문의해 주시면서 지난해에도 노후된 밥솥과 김치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셨어요. 영향력 있는 기업에서 후원을 해준다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기관이 알려지면서 후원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후원과 봉사활동을 넘어 ‘나눔이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분명한 울림을 주고받은 의미 깊은 시간으로 남았다. E&C



### 나눔 소감 한마디



디지털전환처  
주진웅 처장

“지난해 참사랑봉사단은 평소 후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관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애향아동복지관은 이 과정에서 처음 연을 맺게 된 곳이고요. 아이들이 자신만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하는 데 지역사회 또한 함께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스마트융합연구소  
장현영 소장

“지원이 필요한 숨은 기관을 발굴해서 균형적으로 후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향아동복지원이 꼭 맞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원 안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 “ToSPACE의 우수성을

지난 5월 멀리서 온 손님이 도착했다. 한전기술이 제작한 원전배관관리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Salem Al Mheiri 매니저가 손상평가팀을 찾아온 것이다.

글: 김민선 사진: 정우철



(사진 왼쪽부터) 원자력사업본부 SI사업처 황경모 부처장, 정의제 대리, 윤훈 차장

## 배우러 왔습니다”

### 바라카 원전 운영사 대상 교육 운영

한전기술은 2020년 미국과 프랑스 원전 선진국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배관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입찰에 성공했다. 한전기술의 원전배관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ToSPACE’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운영사인 NAWAH Energy Company(이하 NAWAH)가 발주한 것이다. 지난 입찰을 통해 한전기술은 프로그램 납품, 확인, 검증을 거쳐 NAWAH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5월 23일부터 3일간 NAWAH의 Salem Al Mheiri 매니저가 한전기술 본사를 찾았고, ToSPACE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한 황경모 박사를 비롯한 손상평가팀 구성원의 환대와 함께 교육이 이뤄졌다.

ToSPACE는 원자력발전소를 장기간 운영하는 데에 따라 배관의 두께가 얇아지는 감육(Wall Thinning)현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배관 손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 기능으로는 3D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감도 분석, 중장기 검사계획서 작성 등이 있다. 한전기술이 원전기술 국산화 사업에 착수해 성공한 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신뢰성, 효율성, 적합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GS인증도 취득했다. E&C



### MINI INTERVIEW



‡ 교육에 참가한 Salem Al Mheiri 매니저

#### Q. 3일간의 교육은 어떠했나요?

▲ 이론과 실습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한전기술 손상평가팀의 전문적인 경험에 놀랐습니다. 황경모 박사를 비롯한 팀원들이 성공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Q. ToSPACE를 사용하시면서 느낀 장점은 무엇인가요?

▲ ToSPACE는 전 세계 배관감육관리 프로그램과 비교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보다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ToSPACE는 대상 배관을 관리하고 검사와 평가 결과를 저장 및 문서화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 Q. 향후 현장에서 ToSPACE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에는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므로 효율적인 배관감육 관리를 위해 ToSPACE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Q. 한전기술과 함께 이뤄나갈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다시 한번 한전기술이 다양하고 고유한 경험을 지닌 엔지니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한전기술 그리고 손상평가팀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신사업본부&서안종합건설

활기차고



건강한

현장을 위해!

무더위 속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건강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는 사연이 날아왔다. 더 좋은, 사이좋은 사이를 만들었던 현장 속으로!

글. 김민선 사진. 조병우





빙수가 현장의 더위를  
식히며 '감성 안전 활동'  
시간을 만들어 냈다.



### 무더위 가고 안전한 현장만이

“오늘도 안전! 안전! 안전!”

안전을 외치고 또 외치는 구호가 농촌마을에 울려 퍼진다. 바로 충청남도 예산에서 진행 중인 한전 154kV 예산변전소 82MW 계통 안정화 ESS 건설공사 현장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 전 복장과 장비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 안전 구호를 외치는 소리다.

구호를 외치는 이들의 모습에 사뭇 비장함까지 느껴진다. 안전 또, 안전. 안전이 매우 중요한 공사 현장에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변수로 작용한다. 작업자들의 건강 위협과 날씨로 인한 사기 저하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신사업본부는 협력사인 서안종합건설 관계자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근로자를 위해 커피차를 선물하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그 부름에 팔빙수를 전하며 '감성 안전 활동' 시간이 만들어졌다.

에너지신사업본부 예산변전소 송남수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때에 시원한 팔빙수로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더위도 식히니 참 좋네요”라고 말했다.

서안종합건설 황인성 대표는 “현장은 의사소통이 잘 돼야 하는 곳입니다. 송남수 현장소장님이 현장 대응과 소통을 잘 해주셔서 시공이 불편함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건설 현장을 경험했지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위해 커피차까지 준비해 주시는 대접은 처음 받아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사업에 자신감을 주는 든든한 협력사와의 만남

예산변전소 계통 안정화 ESS 건설은 한전기술에게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최초로 수주한 ESS 건설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및 변동성 문제 보완과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 수행 중인 사업이다. 이번 ESS 건설사업을 토대로 한전기술은 급속히 확장되는 글로벌 ESS 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남수 현장소장은 “서안건설종합건설처럼 옆에서, 뒤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는 회사가 있어 한전기술도 사업에 자신감을 갖고 공사를 수행 중”이라며 든든함을 드러냈다.

### 얼음과 팔의 조화가 주는 달콤 시원한 것처럼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요일까지 반납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고마웠다는 송남수 현장소장. 그리고 계약된 공사 기간을 맞추고자 무더위와 장마철을 이겨내 주는 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황인성 대표. 한전기술과 서안종합건설은 서로를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계약 관계로만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팔빙수 한 그릇'을 외쳤다.

현장에서 팔빙수는 맛 좋은 간식이자 충분한 휴식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매개로, 안전보건 관리와 소통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에너지신사업본부 신지훈 차장은 “평소 사업과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많이 가졌었지만, 두 회사가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두 회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더 마련되면 좋겠네요”라고 전했다.

함께여야만 '그 맛'을 만들어 내는 팔빙수처럼 공동의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한전기술과 서안종합건설도 달콤함과 시원함으로 어우러져 나아가길 바란다. **E&C**

### MINI INTERVIEW



한국전력기술과 서안종합건설은 성공적으로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상호 협력하며 원활한 공사와 성공적인 준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공이 잘 돼야 준공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사로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송남수 소장님의 리더십에 따라 어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시공을 진행 중입니다. 좋은 시간과 간식까지 선물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사연을 신중하면  
커피차를  
보내드려요~



○ 사연 보낼 곳  
홍보팀 sky03tree@kepco-enc.com





## “감사한 마음,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전합니다”

도시락에는 설렘이 있다. 그 설렘은 도시락을 전하는 이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받는 사람이  
궁금해하며 열어볼 도시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는지.

글. 김민선 사진. 조병우

“서로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선후배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힘든 일에는 위로를, 좋은 일에는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고 싶어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후배에게 저 또한  
든든한 아군이 되어 다시 한 팀에서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할게요.”

선배 조민영 팀장

E&C

To.

상생노무처 상생경영팀 조민영 팀장



### 배려와 관심에 대한 보답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설레는 몇 안 되는 시간 중 하나 아닐까? 메뉴부터 함께 먹는 이들, 나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가득 채워진다. 이날 도시락의 주인공은 상생경영팀 조민영 팀장이었다. 인사팀 강정현 사원  
이 선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꼭꼭 눌러 쓴 장문의 손 편지와 함께 도시락을 전달했다. 도시락을 전  
달하는 강정현 사원의 발걸음은 가볍고, 받는 조민영 팀장은 기쁘고 고마울 따름이다.

“도시락 코너를 보고 조민영 팀장님이 떠올랐어요. 팀장님의 배려와 관심에 대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조민영 팀장은 “아끼는 후배가 이런 감동까지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평소에도 서로 감사와 응  
원을 보내는 고마운 사이인데 깜짝 놀랄 선물까지 받게 되었네요”라며 후배의 보답에 미소가 가득하다.

### 의지가 되는 선후배 사이

두 사람은 조민영 팀장이 근무 중이던, 당시 회계세무팀에 강정현 사원이 입사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다.  
신입사원의 풋풋함과 서툴지만, 노력하는 강정현 사원의 모습을 조민영 팀장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모습을 잊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 후배라서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스무 살에 입사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했던 강정현 사원의 모습이 생생하네요. 처음  
본 그때처럼 언제나 적극적인 모습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는 후배죠.”

칭찬에 화답하듯 강정현 사원은 “쉽지 않은 업무와 회사생활이 서툴러 어려움이 많았던 그 시절, 차장님  
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못난 구석이 많았던 후배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신 그 든든함을 저도 보답하  
고 싶어요. 팀장님께 더 힘이 되는 아군이 되겠습니다.” E&C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시절,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조언도  
지적처럼 느껴질까 봐 조심해 주신  
팀장님의 배려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때를 잊지 않고, 팀장님께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선배로서 모범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팀장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할게요.”

From.

인사처 인사팀 강정현 사원



# 늘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자로설계개발본부 계측제어설계실 보호계통설계분야  
은형석 차장 가족의 가족사진

부부와 하랑·하준이 그리고 부모님의 기록

글. 한울  
사진. 고석운

항상 그렇듯 시간은 빠르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은형석 과장은 오늘 이 시간을 떼어내어 멋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의 마음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루하루 같은 듯 느껴지지만,  
가족에게는 그 어떤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가족과 보내는 모든 순간이  
은형석 차장에게는 행복이다.  
그래서 평일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예쁜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삶의 위안과 기쁨이 되다!

아침 햇살이 스튜디오 창가에 조용히 머문 주말 아침,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멀리서부터 전해져 왔다. 스튜디오로 들어선 하랑·하준은 ‘여기가 어딘가’ 싶어 두 눈이 동그래졌다. 이내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여기저기 탐색하느라 분주해졌고, 폴짝폴짝 뛰면서 즐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두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두 아이는 가정에 늘 웃음꽃을 주는 보석 같은 존재다.

“우리 가족은 늘 웃음꽃이 가득해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가족 촬영을 한 적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듯합니다. 현재 장인어른의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힘을 내자’며 파이팅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형석 차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아내 김아름 씨는 이런 믿음직한 남편이 항상 고마울 뿐이다. 장인 김영만 씨와 장모 장정희 씨도 “사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다”며 화답했다.

“저희 부부에게 사위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사위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집안

모든 일에 앞장서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뜰하게 챙깁니다. 사위의 따뜻한 말과 선한 마음이 늘 고마워요!”

은형석 차장과 아름 씨는 두 아들 덕분에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다정하게 살폈다. 현재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늘 함께하지 못하니 애통함과 그리움이 존재한다. 아름 씨는 결혼 후 하랑이를 낳고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해 부모님이 있는 대구로 내려왔다. 은형석 차장이 주말마다 대구로 내려와 가족을 보고 가지만, 그 시간은 한없이 짧기만 하다.

추억은 아름다운 법. 아름 씨는 “일 년 조금 넘는 신혼 생활을 대전에서 함께했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라며 두 사람이 껌딱지처럼 붙어 지냈던 신혼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남편을 향한 애정도 아낌없이 전했다.

“남편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대하는 모습에 변함이 없어요. 연애 시절에는 일에 대한 열정 넘치는 모습에 끌렸어요.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저에게 업무를 설명해 줄 때 빛나던 눈빛, 제가 모르는 분야를 설명할 때 보였던 겸손까지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할 거예요.”

아내의 ‘고백’ 같은 말에 은형석 차장이 수줍게 웃었다. 부부는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자고, 서로에게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자고, 때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자고 약속했던 두 사람의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었다.

즐거운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진행된 촬영은 어느덧 후반부로 들어섰다.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가족이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서로 믿고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가족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그래서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약속하면서. **E&C**



단란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가족.  
쑥스러운 마음에 수줍음이 감돌았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준 건 역시 아이들이다.  
‘하하’, ‘호호’ 천연덕스럽게 웃는 하랑·하준이 덕분에  
가족의 얼굴에는 금세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10만 원의 행복

## #4

김천 라이프 즐겁게 지내기 꿀팁

## 경영관리본부 정보보안실 김지훈 사원

글. 김민선 사진. 고인순 영상 촬영. 김지훈 영상 편집. 최의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10만 원의 행복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ISSION 1

김천 재래시장에서 물건 구입하기

### MISSION 2

한전기술 동호회 소개하기



지난 출연자들에 이어 김천 라이프를 더 재밋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전하고자 인사드리는 김지훈 신입사원입니다. 저의 꿀팁은 바로 동호회 활동입니다. 한전기술 본사만 해도 50개가 넘는 다양한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동호회는 '서각회'입니다. 서각은 서각도라는 칼을 망치로 두들겨 목판에 음각과 양각을 더해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서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김천의 재래시장 나들이에 나서 보았습니다.

김천에는 여러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특히 김천평화시장은 야시장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고, 청년몰이라고 청년 사장님들의 공간도 있어요. 야시장이 열리는 날 방문해서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온전히 즐기신다면 이 또한 김천 라이프를 즐겁게 지내는 두 번째 꿀팁이 되겠습니다. 장보기 목록의 작업용 페인트 붓과 작업복 상·하의도 마음에 드는 걸 살 수 있었어요. 열심히 걷고 쇼핑하느라 지친 다리도 쉬고 허기도 달랠 겸, 시장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군것질도 해보았죠.

준비물도 챙겼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위해 체육 시설과 동호회방이 있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1층 체육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2층 동호회방으로 올라갑니다. 체육 시설 내에 다양한 기구와 공간, 샤워실까지 마련돼 있거든요. 제가 드린 꿀팁 잘 보셨을까요? 여유로우면서도 즐거운 김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E&C**



김천평화시장에  
방문했어요.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허기진  
배도 달랬죠.

동호회방이 있는  
건물 1층  
체육 시설에서  
체력 관리도  
하고요.

즐거운  
동호회 활동~  
서각회  
선배님들의  
작품 보이시나요?





잠 못 이루는 여름밤,  
별 총총한 그곳!

# 함백산



한여름 날씨는 심술궂다.  
높은 습도, 구름에 뒤덮인 잿빛 하늘,  
장대처럼 굵은 소낙비...  
그런데 힐링을 선물할 때가 있다.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벗하는 순간이다.  
태백시와 정선군에 걸쳐 있는 함백산은  
낮과 밤이 전혀 딴판이다. 낮이 풍성한  
초록 세상이라면 밤은 별이 총총총  
빛나는 별세상이다.

글·사진, 여행작가 임운석

## 초록에 물든 함백산 만항재에서 만난 야생화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차를 타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고개다. 해발 1,330m에 자리한 이 고개는 남한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1,573m)의 턱말이다. 길은 예상대로 구불구불 급경사가 이어진다. U턴을 하듯 휘감아 도는 구간에서는 허를 내두르고 만다. 운전 손맛을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에 정선군 고한면에서 태백시 혈동을 잇는 구간을 달린다. 돌고, 돌고, 또 돌아간다.

사람들이 함백산 만항재를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다. '백두대간 만항재' 표지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하늘숲공원', 왼쪽이 '천상의 화원'이다. 대부분 하늘숲공원을 먼저 돌아보는데 공원 앞이 탁 트여 있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숲공원보다 천상의 화원의 면적이 더 넓다. 하늘숲공원 안으로 발길을 들이면 지천으로 핀 야생화가 반긴다. 이름도 알쏭달쏭한 난생처음 보는 꽃이지만 어느 것 하나 탐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숲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만항재에 피는 꽃을 담은 사진과 이름, 개화 시기, 꽃말 등을 적어놓은 팸말이 있다. 엘레지, 홀아비바람꽃, 홀아비꽃대, 천마깽이눈, 회리바람꽃, 제비꽃 등 모두 우리말 이름이다. 야생화는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자극적이지 않은 향기와 색이 매력이다. 비록 작은 꽃이지만 제각각 뽐어내는 아우라는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총만하다.



- 1 — 태백선수촌 인근 도로변에 은하수가 피었다.
- 2 — 보라빛깔 고운 아스틸베꽃
- 3 — 하늘숲 공원의 울창한 낙엽송 군락지





4 — 위엄이 느껴지는 함백산 정상석  
5 — 탁 트인 함백산 정상부  
6 —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황지연못

# Hambaeksan



## 고원도시 태백, 물의 도시 태백

태백시는 고산준령에 둘러싸인 고원도시인 동시에 물의 도시다.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모두 태백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중 황지연못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 찾을만한 곳이다. 특히 해거름이 좋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땅 거미가 드리우면 황지연못 주변은 낮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조명이 빛을 발한다. 게다가 여름 주말 저녁에는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황부자 야시장이 열려 먹거리까지 풍성해진다. 함백산 은하수를 감상하려면 늦은 밤까지 산에서 기다려야 하므로 여기서 미리 야식을 준비해도 좋다. 여느 야시장처럼 이곳도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한반도가 열대야로 고생한다지만, 이곳은 모기 입이 삐뚤어질 만큼 선선했 밤이 더 행복하다.

## 태백의 밤은 별 헤아리는 밤이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시각에 함백산으로 향한다. 태백시에서 은하수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을 꼽자면 당연히 함백산이다. 함백산으로 향하는 곳에 모두 5개의 스폿이 있다. 그중 함백산 기원단이 있는 정상부는 태백산 국립공원에 속해 오후 4시부터 오전 3시까지 입산이 금지되어 오를 수 없다. 나머지 포인트들은 함백산 가는 길목에 있으니 한 곳씩 쉼터하며 이동하면 된다. 이들 코스를 ‘태백 함백산 은하수길’이라 부른다.

먼저 도착한 곳은 오투전망대다. 태백에 은하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너른 공터에 팔각정까지 있으니 여유롭게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팔각정은 은하수와 함께 촬영하면 색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아쉬운 점은 함백산 초입에 있어 광해(光害) 탓에 선명한 은하수를 보기 어렵다는 것. 다음 코스는 도로변을 따라 이어진다.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하늘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다. 별이 하늘에 가득하고 주변에 안개 같은 띠가 드리워져 있다면 은하수를 촬영하기에 적합하다. 육안보다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을 때 더 선명한 은하수를 볼 수 있다.

함백산에서 은하수를 촬영한 곳은 태백선수촌 주변 도로변이다. 산 그림자마저 자취를 감춘 캄캄한 함백산 자락에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별천지를 마주한다. 바람은 시원하다 못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갑다.

평균 해발고도 902.2m, 8월 평균기온 25℃. 고원 도시 태백의 여름밤은 별을 헤아리기 좋은 별세상이 분명하다.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다”라는 알폰스 도데의 소설 <별>이 현실이 될 줄이야. **E&C**



## TIP



### 함백산 은하수 포인트 내비게이션 정보

오투전망대, 황지동 산176-19, 태백산 선수촌, 혈동 산57-33. 태백시는 함백산 이외에 오투리조트, 스포츠파크, 오로라파크, 탄탄파크, 구문소, 태백산(당골광장) 은하수 여행지를 추천한다.



### 은하수 촬영팁

구름 없는 맑은 날, 보름보다 그믐에 가까울수록 좋다. 삼각대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설치하고 카메라를 세팅한다. 수동모드에서 조리개는 최대개방, 셔터스피드는 15초, ISO는 3200 정도가 좋다.



## 시원한 여름을 가득 담아

물 한 잔이어도 좋다. 더 맛있게,  
더 예쁘게 마시기 위해 커피나  
음료의 색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투명한 유리잔을 고르거나 내 입맛에  
맞게 조절된 재료를 예쁜 틀에  
얼려보는 것. 작은 정성이 만들어 낸  
시원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글. 김민선 사진. 조병우

# #SPECIAL ITEM

①

### 유리잔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볍게 음료를 담아내고 싶을 땐 군더더기 없는 머그잔이  
나 유리잔을 선택한다. 기본형 비커머그의 매끈함에 컬러  
포인트가 더해지면 음료는 물론 식탁에 생기가 돈다. 어  
디 식탁뿐일까. 유리잔에 커피와 얼음을 가득히 넣어 한  
모금 마시면 입안에 퍼지는 커피향과 컵을 잡은 손잡이가  
사무실에서 시원함을 전한다. 잔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물  
방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시원함은 덤이다.

②

### 컵에도 트렌드가, 플리츠 컵

컵에도 유행 아이템이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컵은 플리  
츠 컵이다. 플리츠는 주름을 뜻하는 단어인데, 빈티지 식  
기가 유행하면서 세로줄의 양각이 들어간 유리 플리츠 잔  
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플리츠 컵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입술이 닿는 컵의 입구 부분은 '골드랑'이 더해져 우  
아함이 동시에 전해지는 것이다.

③

### 천천히 녹아라! 얼음아

덥고 습한 날씨로 얼음이 빨리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게 아  
쉽다면, 이중 유리컵을 선택해 보자. 이중 레이어 구조로  
만들어져 음료의 온도가 오래 유지된다. 또한 찬 음료를  
담아도 이슬이 맺히지 않아 테이블이 젖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이중 유리컵의 또 다른 장점은 가볍다는 것. 컵이  
가벼운 제품을 찾는다면 이중 유리컵이 제격이다.



# #SUMMER VACATION

④

### 귀여운 곰돌이가 동동~

동그랗고, 네모나고 다양한 얼음을 사이에서 올해 돋보이  
는 아이템은 단연 곰돌이 얼음이다. 곰돌이 모양이 입체  
적으로 만들어지는 얼음틀이라면 폭폭 찌는 날씨 속 소소  
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틀에 물, 우유, 커피 등을 넣어 얼  
리기만 하면 평범한 음료도 스타일링이 더해진다. 맛으로  
한번, 마치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  
상케 해 보는 맛도 느껴진다.

⑤

### 여름의 맛 아이스크림

재료에 따라 아이스크림, 얼음틀이 되는 만능 '아이스크림  
틀'. 하나씩 쓱쓱 빼서 베어 무는 맛에 아이스크림틀의 아  
이스크림을 즐기게 된다. 아이스크림에 '지속가능'을 연결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  
고, 다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쓰레기도 줄이니 아이스  
크림틀로 만든 아이스크림만한 지속가능 아이템이 또 어  
디에 있을까. 여기에 제철 과일 등으로 맛까지 챙기면 이  
만한 가성비 아이템이 없다. **E&C**







# 다시 부르는 그 노래

정리, 편집실



## 세대공감 “여름엔 이 노래지!”

‘여름’, ‘시원한 음악’을 검색하면 다양한 가요들이 추천되는데, 이때 느껴지는 것이 세대 차이. 음악감상에 세대 차이가 중요하겠나마는 이 왕이면 노래나 가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를 선택하면 더 좋지 않을까?

Mark Ronson(Feat. Bruno Mars)

Cause uptown funk  
gon'give it to you  
Saturday night and we in the spot  
Don't believe me just watch  
(Come on)



## 텐션을 올려봅시다!

얼마 전 10만 명이 넘는 규모의 내한 공연을 한 가수 브루노 마스의 대표곡 중 하나인 ‘Uptown Funk(업타운 펑크)’. 펑크, 소울, 부기, 디스코팝 리듬이 가사를 잘 모르는 이들도 흥이 절로 나게 한다. 노래 가사처럼 업타운 펑크와 함께 신나게 여름을 즐겨보자.

박명수

다시 돌아온 바닷가  
왠지 그녀도 왔을까  
여기 저기 둘러보아도  
부서지는 파도소리만

산이, 레이나(애프터스쿨)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 밤의 꿈, 한여름 밤의 꿈  
so sweet, so sweet, yum



## 무더운 여름밤 듣기 좋은 노래

제목처럼 뜨겁지 않은 여름밤을 떠올리게 하는 곡, ‘한여름 밤의 꿈’. 여기에 듀엣으로 표현한 설렘과 간지러움이 달달한 무드를 더한다. 지난 한여름밤의 설레는 추억을 회상하며 노래와 함께 잠시 분위기에 취해보자.



## 생각만 해도 시원한

생각만 해도 시원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아이스크림, 빙수와 같은 여름 간식이 아닐까. 더위에 목이 마를 때 빙수 한 입이면 시원함과 달콤함이 충전되듯 말이다. 빙수의 식감과 먹는 법을 잘 살린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공떡 빙수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 **EXC**

악동뮤지션

달콤한 팔랑금 후식으로 방금  
먹고 또 먹고싶은 졸깃졸깃 공떡  
빙수 떡빙수 공떡빙수  
너의 빈손가락을 채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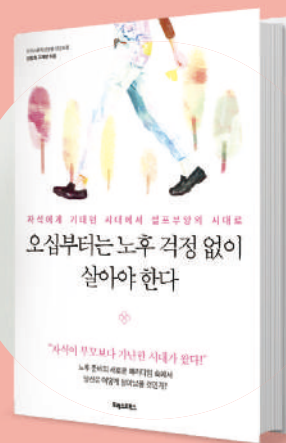
# SUMMER SONG





## 읽고 쓰는 기쁨

### 기계배관환경기술실 손병관 부장의 서평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당신뿐이다”

<오십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강창희·고재량 저  
포레스트북스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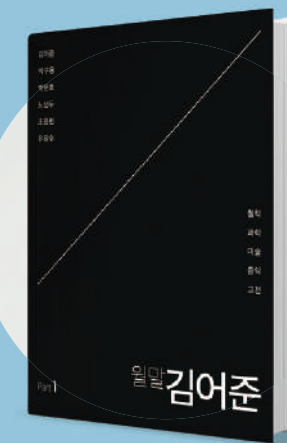
<오십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는 책 제목이 아직도 노후를 준비 중인 나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50대 중반에 들어서야 시작한 노후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하다. 우리 시대의 노후는 ‘셀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임을 강조하는 데 지극히 공감한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임을, 즉 꾸준히 일을 해서 한 달에 백만 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책에서 가르친다. 여기에 저금리 시대 금융자산 운용 방법으로 3층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이야기에 아내의 출산과 육아로 보낸 시간에 대한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70대 중반의 저자가 하는 조언이니 그의 말은 신뢰성이 충분하다. 이제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아내와 둘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된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당신뿐이다”라는 조언을 30대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했던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남은 은퇴까지의 시간을 열심히 준비해 보려 한다. 이 책은 나처럼 은퇴를 앞둔 이들뿐 아니라 20대 사회초년생까지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끝으로 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돈도 잘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한전기술인은 모두 오십부터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길 소망해 본다. 노년에도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자에게 감사하며!

우수 서평으로 선정된 한전기술인의 서평을 통해 책이 주는 앎과 기쁨, 감동을 함께 누리보자.

정리. 편집실

###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유체계통설계실 정덕목 부처장의 서평



한전기술인의 지적 능력  
확장을 위하여

<월말 김어준 Part1>

김어준, 박구용 외 4명 저  
팟방북스 출판사

<월말 김어준 Part1>을 읽었다. 사고방식과 행동이 워낙 자유로운 사람이라 말과 글이 모두 재미있고 유익할 것이라 기대하고 읽었고, 예상했던 대로 좋았다. ‘지적확장공사(知的擴張工事)’라는 부제가 어색하지 않게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걸쳐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견해와 그 지식의 정수, 아니 본질에 깨우침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철학자 칸트, 헤겔, 니체 철학의 정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박구용 철학과 교수, 우주의 긴 역사를 물리학, 화학, 생물학, 광물학 등의 기본개념을 활용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준 박문호 공학박사와의 대담은 인류 지식의 통섭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었다.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한전기술인이 수행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도 인간의 지식과 기술체계를 적용한 공학기술의 하나일 뿐이다. 원자력 설계기술은 그 과학기술의 하나로 근본적으로 르네상스 인간들의 이성에 의한 지식체계의 산물이다.

내가 젊은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에도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엔지니어가 그 어떤 기술적 판단을 수행할 때 반드시 거치는 편익과 비용 분석도 영국의 공리주의, 미국 실용주의 철학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엔지니어는 생각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원자력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원자력발전소 설계사의 주체인 한전기술인의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이 책을 추천한다. 자연과학과 기술, 공학의 통합적 지식체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김어준의 대담과 토론이 한전기술인에게 깊은 통찰을 전해줄 것이다. E&C





###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선도기업 수상

회사는 지난 5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선도기업' 시상식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문' 최우수(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즈, 스탯이스타(Statista)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선도기업 선정은 국내 1,200여 개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공개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량화해 평가한다. 그 중 ESG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150개 기업만이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글로벌 평가기관인 독일의 스탯이스타에 그 평가를 일임했으며, 특히 19개 산업 부문별 최우수 기업을 별도로 선정하는데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 김성암 사장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 수상

김성암 사장은 지난 4월 28일 한국품질경영학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공동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23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공공부문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은 국가 산업발전과 품질경영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성암 사장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유럽원전사업자협회(EUR)로부터 유럽수출형 원전 APR1000의 표준설계인증 취득에 기여하고, ASME N-Certificate 인증을 갱신하는 등 혁신적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을 통해 설계품질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HD현대중공업과 SMR 선박 적용 MOU 체결

회사는 지난 5월 23일 'SMR 기술 교류 및 선박 적용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HD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SMR 개발 및 활용 관련 기술 교류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SMR 발전선·추진선 등 선박 적용을 위한 협력 항목을 공통으로 발굴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김성암 사장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3사 공동 합작 사업 '바다에너지'와 FEED 계약 체결

회사는 코리오제너레이션·토탈에너지스·SK 에코플랜트가 공동 개발하는 국내 해상풍력 합작 사업 포트폴리오인 '바다에너지(BadaEnergy)'와 육상전력 공급 시스템 기본설계(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계약을 지난 6월 16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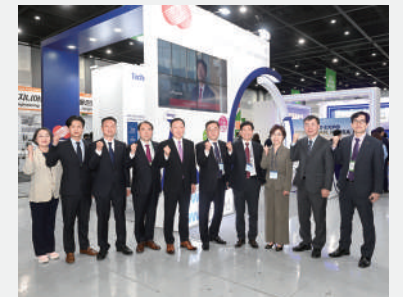
이번 계약은 귀신고래 해상풍력 발전 3호(㈜귀신고래 3호)의 FEED를 담당한다. 귀신고래 3호는 울산 온산항으로부터 약 60~70km 떨어진 해상에 약 504MW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회사는 육상 케이블 루트 디자인, 육상 변전소 등의 기본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 신한울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용역 착수 회의

회사는 지난 5월 10일 신한울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로 원자로설계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원자로건설사업처장, 각 설계실장 등 원설본부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신한울3,4호기 사업 개요 ▲계약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인허가 업무 추진 현황 ▲향후 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으며 사업부서와 설계실 간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회사는 신한울3,4호기 사업은 2033년 10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원자로계통설계 역무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 참가

회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2023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 2023)'가 함께 개최돼 체코, 폴란드,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산·학·연 관계자가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회사는 전시에서 ▲APR1000 ▲BANDI ▲원전해체 기술을 소개한 가운데 최근 EUR 인증을 취득한 APR1000과 함께 BANDI가 많은 방문객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 <KEPCO E&C Family>와 함께해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QUIZ와 독자의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UIZ



#### E&C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E&C 팻말이 숨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곳을 모두 찾아 등장 횟수를 적어주세요.  
(힌트 : 작은 팻말도 숨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장 횟수 □ 1번 □ 2번 □ 3번

### 축하합니다

커피 기프티콘 3만 원권

김은하, 편미경,  
변정규, 김소영,  
한복희



### 독자 의견

사보를 보고 좋았던 기사,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해야 할 점 등 관심 이  
린 의견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보에서는 선후배 간의 돈독한 우정이 깃든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  
즘 MZ세대다 뭐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니 다소 삭막한 사회  
를 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한전기술 사원 간의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훈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은하(사외독자)

사보를 읽으며 남편의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사랑봉사단', '10만 원의 행복'을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10만 원의 행복'에서 신입사원 감성 라이프를 소개해 준 김천의 명소, 맛집 등 정  
보를 보고 직접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내어 가보려고요.

편미경(사외독자)

사보가 한결 더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사보 제작에 애  
를 많이 쓰신 것도 느껴졌습니다. 사보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느껴지는 분위기처럼  
더 따스한 사람들의 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정규(원자력사업운영실)

한전기술 직원들을 위한 사보이지만 사외독자들도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참 많네  
요. 회사 안팎의 새로운 정보와 일상들이 다채롭게 나타나 있어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독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한층 더 높아졌답니다.

김소영(사외독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된 '참사랑봉사단' 내용과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  
지욱 사원'의 이야기가 빛났습니다. '비하인드 토크'에서 원전설계 기술에 대한 문답식  
설명도 유익했고요. 분홍빛 사보 표지도 눈길을 사로잡네요!

한복희(사외독자)

# 기술에 전력을 다하다!

# 에너지 국력을 높이다!

한국전력기술은  
글로벌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풍부한 발전소 설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의 경쟁력을  
드높이고 있습니다